「오카야마 시장 메일 메거진(111)」 2019 년 2 월 1 일 호

【반세기 역사를 새기는 자매도시 코스타리카 산호세시 방문】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월 24일 부터 31일에 걸쳐 저를 포함한 오카야마시민 우호친선방문단 총 39명이 자매도시 체결 50주년을 기념하여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시를 방문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어떻게 오카야마시와 산호세가 자매도시를 체결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그 경위를 설명하면 1957년 오카야마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노제시가 자매도시가 된 4년후 같은 이름(San Jose)인 산노제시와 산호세시가 자매도시가 되었을때 산노제 시장으로부터 「세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세계적으로도 재미있는 결연이 되지 않겠냐」는 제한이 있어 1969년 실현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많이 멀고 경제적인 교류도 없는 도시간의 교류가 반세기의 긴 시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것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양 시의 선인들에 의한 끊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한 번 느끼는 바입니다.

산호세시를 방문해서 먼저 놀란것은 산호세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외에 많은 분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방문단도 오카야마시 출신의 정경묘사 피아니스트 야마지 마미씨, 오카야마 조토고등학교 합창부 학생들, 현지 오케스트라 등이 콜라보레이션한 콘서트와 비젠도자기 작가 모리 타이가씨에 의한 강연과

작품 전시 등, 음악과 조형을 통한 재미있는 퍼포먼스 등이 선보여 현지 분들과 좋은 교류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말로는 좀처럼 전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일본의 「후루사토(고향)」「이웃집 토토로」등를 노래할 때에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동되어 박수 갈채가 그치지 않고 종료를 안내한 순간 일제히 야유가 일어나고, 야마지씨는 오캬아마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츠루와 마우(학은 춤춘다)」를 영상과 함께 선보였을 때에는 주한 코스타리카 일본대사 영부인을 비롯한 일본계 기업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등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분기점에 위치해 라틴 분위기의 장점을 느끼면서도 차분한 것을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어 그런 부분이 일본인과 마음이 통하는 큰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이런 유익한 방문이 실현되었던것도 방문단 여러분은 물론이고 환대해주신 이토대사를 포함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협력의 산물이며,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림과 함께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향해 이 우정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키워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